

나에 대한 모든 것

별리르 체첵

나는 몽골에서 온 유학생이다. 현재 사회학을 공부하는 박사과정 수료생이다. 나의 한국 생활은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다. 매일 똑같은 일정을 수행하고 매일 정해져 있다시피 한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한국에 오게 된 것은 학부 때 한국학을 전공한 것과 연관이 있다. 몽골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취직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당시 지도교수님께서 더 공부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시며 “조금 더 공부하면 잘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다. 조금 망설였지만 도전해보고 싶어서 대학원 입학에 결심하였다. 한국학을 전공하였기에 유학은 한국에서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장학금 프로그램에 신청하여 석사 유학을 시작하였다.

한국에서 석사학위를 3년 만에 마치자마자 바로 본국에 돌아갔다. 몽골에서 직장 생활을 4년 동안 하다가 다시 공부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꼭 연구하고 싶은 현상이 생겼기 때문이다. 몽골의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왜 장기체류보다 단기 체류를 택하는지 궁금증이 커졌다. 그 호기심에 회사를 그만두고 박사과정에 입학하였다. 한국에 다시 돌아온 후로는 학업과 학교생활에만 집중하면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사진 공모전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나의 일상생



활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흘러가는가?”였다. 사실 나 스스로 내 하루가 더 궁금하였다. 왜냐하면 이번 박사과정에 올 때 자신과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한국에서 제대로, 젊은 사람답게 생활하기! 석사과정을 마치고 본국에 돌아갔을 때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이 뒤늦게 후회되었다. 몽골에서 만난 한국 유학파 친구들이 한국의 ‘어디 동네가 그리다’거나 ‘어떤 음식을 먹고 싶다’ 등 노스텔지어에 가까운 이야기를 끝없이 할 때 나는 딱히 할 말이 없었다. 내가 학교 캠퍼스와 학식 말고 이야기 거리가 없는 사람인 것을 그때 알게 된 것이다. 이번에는 다르게 살 것을 다짐하고 왔는데 그 처음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가 궁금해졌다. 그래서 바로 핸드폰 갤러리에 들어가서 보통 내가 어떤 사진을 찍는지를 쭉 훑어봤다.

답은 ‘별거 없네’, ‘예전과 똑같네’였다. 동시에 나에게 ‘이주민의 일상생활’로 특징지어 어필할 수 있는 특별하고 특이한 점 역시 하나도 없어서 더욱 당황하였다. 문득 이주민도 내국인과 별 차이가 없고, 과연 이주민은 왜 일상생활이 꼭 달라야 하는지 같은 질문들이 머릿속에 쏟아졌다. 그래서 이번 공모전에 제출한 사진들은 ‘설정샷’이 아니라 ‘찐 일상생활’의 공간과 방식을 보여주는 것을 전략으로 삼으려 하였다. 동시에 이주민의 일상은 겉으로는 내국인과 별다름 없어 보이지만, 내면으로는 그 의미가 다르고 그 일상을 가능케 하는 ‘장치’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다른 대학원생들처럼 주 4일~5일은 연구실에 나와 늦은 아침부터 밤까지 연구실에서 산다. 어떻게 보면 기숙사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나는 이 공간을 무척 좋아한다. 한마디

로 ‘나에 대한 모든 것’이며 나를 대표할 수 있는 공간이다. 공부하는 공간 그 이상이란 뜻이다. 연구실에서 공부, 연구, 인간관계, 정보교환을 하며 때로는 연구실이 안식처가 될 때도 있다. 매일 연구실에 나오는 내가 연구실에서 공부와 연구만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이 연구실에서 내가 나의 일상, 즉 나의 오늘이자 내일, 현재이자 미래를 모두 계획하고 실천한다.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
Hikorea & 연구실

모든 활동의 실천 전에 나는 “Hikorea”라는 온라인 공간에 접속하여 각종 일처리를 한다. 나의 존재가 공간과 인터넷 속 비공간을 넘나들어야만 일상이 이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일상을 영위하기 전에 내가 필수로 밟아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은 체류 허가부터 활동 허가까지 다양한 ‘허가’를 신청하는 일이다. 이는 나의 ‘한국 삶’에서 단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예컨대, 새로운 프로젝트 참여, 연구실 동료들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경우 등 공부가 아닌 활동을 하게 되었을 때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사전에 받은 이후에만 움직일 수 있다. 나는 ‘외국인 유학생’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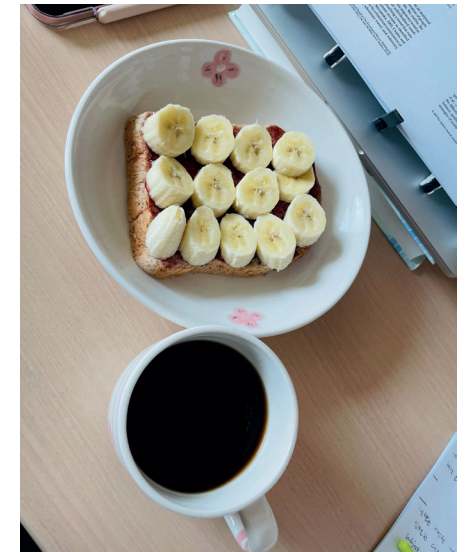
한국에서 일상생활의 범위와 종류, 해도 되는 일과 안 되는 일, 해야 하는 일 등이 사전에 심사와 허가를 받은 후 정해진다는 면에서 분명히 이주민의 일상생활이 내국인과 같을 수가 없다. 물론 신청과 허가를 매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항상 이런 일에 신경 쓰면서 수많은 신청과 연장, 그리고 허가에 얽매어 일상을 보냈다는 것이 본국에 돌아간 후에 뺏속까지 느껴졌다. 비로소 ‘족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워졌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다. 아마도 내가 학업을 마치고 연구실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날이면 “Hikorea”에 접속하여 허가를 신청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그때는 한국을 떠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침 운동

아침 운동은 한국에 온 이후 새로 생긴 습관이자 루틴이다. 한국 사회와 학생들로부터 본받은 좋은 습관 중 하나다. 몽골에 있

었을 때는 건강에 대해서 걱정해본 기억이 별로 없다. 타지에 나온 이후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신을 관찰하게 되고 동시에 가족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아프면 나보다 많이 걱정하시는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제대로 공부하려면 몸이 건강해야 한다는 강한 믿음이 생겼다. “건강한 몸에 명량한 정신이 존재한다”는 몽골 속담이 있다. 나는 이를 “명량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건강을 우선 생각해라”로 변경하여 일상 속에서 운동을 자주 하려고 노력한다. 날씨가 좋을 때 돈이 안 드는 바깥 운동, 러닝, 걷기, 그리고 스트레칭 하는 것을 즐기며, 날씨가 덥거나 추울 때는 헬스장, 수영장 등 실내 운동을 즐겨 한다.



X&O 아침

나는 아침을 꼭 먹는다. 기숙사에서 아침 식사가 나오지만, 몽골에서의 아침 식습관은 여전히 포기가 안 된다. 몽골에서 아침 식사는 빵, 버터, 계란후라이, 소시지 등으로 간단히 먹는데 한국

에서 나름대로 나만의 레시피를 찾아 즐겨 먹고 있다. 그중 하나는 'X&O 아침'이라는 바나나빵이다. 빵에 딸기잼을 바르고 그 위에 바나나를 올려놓으면 완료인데 기숙사에서 금방 해먹을 수 있는 아침 메뉴 중 하나다. 한국 룸메이트를 비롯하여 기숙사에 사는 몽골 친구들이 다 좋아하며, 그들이 'X&O 아침', '바나나 빙고' 등의 이름을 지어 주었다.



매일 '학식'

한국에서 식사, 박사과정을 거치는 동안 한 번도 학교 기숙사 바깥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점심과 저녁은 거의 다 학생 식당에서 먹는다. 캠퍼스에서 나가서 먹거나, 기숙사에서 해먹을 시간이 없는 학생들에게 학식은 정말 최고다. 처음 식사할 학생

식당을 고를 때는 '내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메뉴', '고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메뉴'를 골라서 갔었다. 이제는 연구실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서 빨리 먹고 온다. 그때마다 나 스스로 신기할 때가 많다. "이제 이런 것도 먹을 줄 안다고?" 내 입맛도 나와 함께 진화하고 있다.



한숨 돌리기

나는 넓고 광활한 공간을 무척 좋아한다. 특히 산에 올라가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것과 한강에서 트여있는 주변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한다. 이것이 향수병인지 마음의 답답함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잘 모른다. 등산은 주로 가을과 겨울에 하고, 한강은 봄에

가곤 한다. 어떻게 보면 트여있기만 하면 ‘몽골스럽다’는 느낌을 받게 되어 산, 강 등 넓은 공간을 찾는 듯하다. 학교생활이 늘 재미있고 좋을 수가 없다. 가끔 머리가 복잡할 때 시야를 가리는 뺨뺨한 가로수는 나를 답답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럴 땐 연구실 건물 옥상에서 산꼭대기를 바라보며 한숨을 돌린다. 이는 타지에서 큰 목표를 이루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나에게 맑은 정신을 선물해 주는 하나의 예쁜 취미다.